

# 靈岩 淸風寺址石塔內 發見遺物

崔 夢 龍

全南大學校 本部建物左側 庭園內에 靈岩 淸風寺址에서 發見되었다는 花崗岩으로 造成된 石塔一基가 있다. (現總高 3m 86.5cm) 이 塔은 元來 現行政區域上 全南 靈岩郡 靈岩面 鶴松里에 있었던 것인데 一九六九年 一月 道路의 幅을 넓히기 爲해 移轉이 不可避하게 되었다.

그래서 文化財管理局과의 여러번 折衷 끝에 現位置로 盤入된 것이며 移轉時 이 塔을 解體하였을 때 舍利壺가 발견되어 注目을 끈다. 이 石塔의 存在에 대해서는 이미 紹介된 바 있으나 이 塔의 盤入經路 및 解體·復元에 對해서 아직 仔細한 報告가 되어 있지 않아 우선 여기에 資料의 報告程度로 簡略히 紹介해 두고자 한다.

舍利孔은 上層基壇上部에 方形으로 (一三×一三cm 길이 約一〇cm) 마련되었고 그 속에서 李朝白磁系統의 靑磁色나 舍利壺가 發見되었다. 그런데 이러한 靑磁色의 李朝初白磁는 地方窯에 依한 胎土의 選擇으로 往往 일어나는 것이며 그 顯著한 例로 京畿道 廣州郡 退村面 道馬里窯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朝鮮初의 靑磁 靑華白磁 등이 出土되어 國立博物館에 保管中②인데 여기의 舍利壺와 꼭같은 類의 磁器가 있어 좋은 比較資料가 된다.

이 舍利壺를 보면 뚜껑과 壺가 各各 別個로서 뚜껑은 본래 접시로 쓰였던 것인데 임의로 舍利壺의 뚜껑으로 代用이 된 듯하다.  
 뚜껑의 高三cm 直徑 一·九cm 最大厚 〇·五cm 이고 壺의 高六·五cm 胴部最大徑 一〇·八cm 底部最大徑 五·九cm 口緣部徑 七cm 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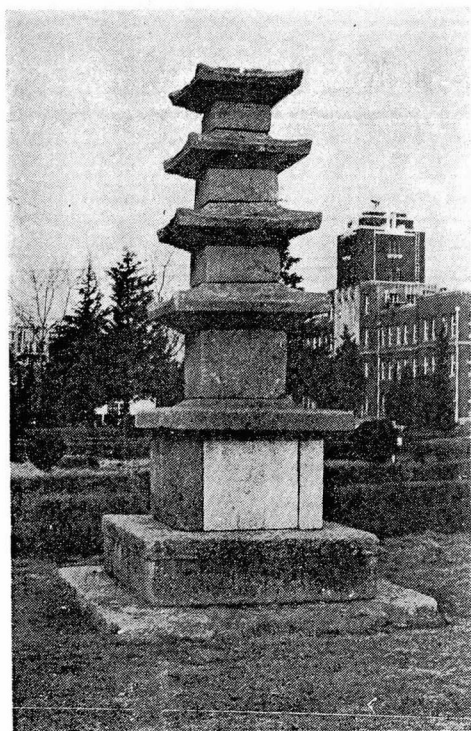
그런데 이 舍利壺內部에는 佛家에서 高僧의 茶毘後 安置한 뼈가루(骨粉)가 約 20g 정도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어 本來 이 塔의 造成目的이 塔

로서가 아니라 浮屠의 形式에 該當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. 이러한 浮屠塔의 例는 江原道 原州에서 移安하여 현재 景福宮內에 보존되어 있는 令傳寺址普濟尊者舍利塔(寶物三五八號)③이 塔婆系統의 浮屠 形로 되어 있어 몇 例 안되는 浮屠塔系統의 樣式에 重要한 資料를 提供해 준다 하겠다. 그리하여 이 舍利壺를 石塔의 창건당시 奉安物로 본다면 이 塔은 朝鮮初白磁系統의 舍利壺와 同代의 建立으로 보아 李朝初의 浮屠임을 알 수 있으며 그 塔의 樣式은 여기 靈岩과 地域의 爲해 가까운 李朝初의 碧松寺三層石塔(慶南(成)陽郡 馬川面 楸城里 所在, 寶物 四七四號)④과 같은 系統임을 짐작할 수 있다.

그러나 여기 五層浮屠塔에 對하여는 文獻이 전혀 없어 누구의 浮屠인지 알 수 없어⑤ 안타까운 實情이며 後日 文獻이 補完되어 이와 같은 浮屠樣式의 年代編年이 밝혀지기를 期待하며 우선 이것으로 一資料가 되었으면 좋겠다.

### 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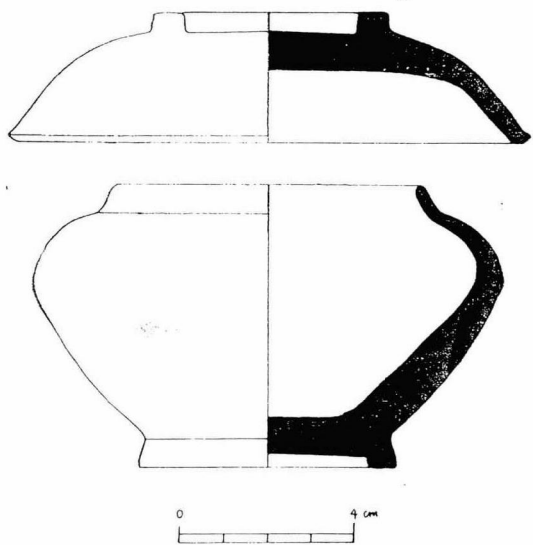
- ① 鄭永鎬: 「靈岩의 石塔 二基」 考古美術 第五卷 第十一號 通卷 52 (一九六四年 一月)
- ② 國立博物館 美術課에서 發掘하였으나 報告書는 未刊임
- ③ 文化財大觀 寶物編上 (文化財管理局 一九六八, 一一) P 四四二
- ④ 前掲書 P 五七〇
- ⑤ 全南名勝古蹟圖集成 (一九五六) P 三九에는 淸風寺址五層塔(新行)이라고 略記되었고 日人 구로즈미(黒住)가 一九四五年 屋蓋石과 相輪部를 日本에 盤入할려다 말았다는 記事가 실리고 있어 그때 五層屋蓋石과 相輪部가 없었던 것 같다.



移安社 清風寺址 石塔



舍利壺 發見狀態



舍利壺 實測圖



舍利壺